

[TV]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수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program listings with times and titles.

“한국인 하루 두시간 뉴스 본다”

연론재단 '뉴스 소비' 조사...TV-신문-케이블-라디오-인터넷포털 순

20세 이상 한국인들은 뉴스를 얻기 위해 하루에 2시간 남짓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연론재단이 펴낸 '국민의 뉴스 소비'란 연구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 1천 201명을 대상으로 17개 뉴스매체 이용을 포함한 뉴스 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매

체를 하루 평균 5시간19분 이용하고 순수하게 뉴스를 얻기 위한 용도로는 평균 122.8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뉴스매체는 지상파TV와 중앙종합일간지, 라디오, 케이블·위성TV 뉴스채널,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무료신문, 인터넷포털, 신문과 방송의 온라인사이트, 인

터넷신문,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DMB, 국제뉴스채널, 시사잡지, 외국 시사잡지, 모바일뉴스 등이다. 122.8분 가운데 TV 뉴스 시청이 56.7분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고 중앙일간지가 18.1분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케이블·위성 뉴스와 라디오 뉴스는 각각 10.9분 소비했으며 인터넷포털 뉴스는 10.7분으로 5위를 기록했다. 뉴스 소비시간은 남성이 평균 137.7분으로 여성(108.6분)보다 29.1분 많았으며 20대에서 평균 100.3분으로 가장 적었고 60세 이상은 143분으로 가장 많았다.

불륜 등 파격적인 소재 없어도 인기

KBS 일일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 시청률 1위



KBS 1TV 일일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극본 최현경, 연출 문보현)이 소리 없이 강하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는 30%에 이르는 시청률로 MBC '주몽'의 퇴장 이후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 1위 프로그램치고는 조용하기만 하다. 주시경자가 주부층인 민규 윤

라인 바람을 타고 화제가 되기가 힘들다. 불륜 등 파격적인 소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기의 이유. 자극적인 설정 없이 담백한 이야기로 일상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발견하겠다는 설명. 현재 방송 중인 MBC 일일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비롯해 SBS '내 남자의 여자' '연인' 등 최근 불륜 코드가 브라운관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황을 만한 시도도 평가된다. 문보현 PD는 "물론 강한 이야기가 좋아하

는 시청자도 있었지만 잔잔하지만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차별화를 꾀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시청률 3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드라마들과 경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최진실 주연의 MBC 일일드라마 '나쁜 여자 착한 여자'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일일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하늘만큼 땅만큼'이 끝까지 '담백함'과 주간 시청률 순위의 맨 뒤자리를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Living TV 리릭 헌터(12시) - 매력적인 여성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고 모험가이기도 한 시드니 폭스 교수(티아 카레리 분)는 조교 나이젤(크리스 티엔 앤솔트)과 함께 매 꾀마다 고대 유물을 찾아다니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펼친다. 시드니의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외국 의 왕자가 있다.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건네려 하자 그는 누구의 충성심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던 중, 잡가만 하면 그 사람의 진실이 보여준다는 고대 유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대 유물인 '진실의 등'을 찾기로 한다. 하지만 위험한 유물 탐색가와 동행했다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 건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창업25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6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for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SBS, MBC, OCN, and other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title.